

# CJ대한통운, ‘매일오네’ 도입 1년 생활소비재·식품 등 배송 늘었다

작년 분석 결과, 일요일 67% 증가  
기저귀·유아용품 늘며 효과 ‘독특’  
식품·특산물도 확대, 셀러 판로 넓혀

한진 합류로 주7일 배송 경쟁 본격  
롯데글로벌로지스도 4일부터 시작

일요일까지 ‘주 7일 배송’이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이 1년전 출시한 ‘매일오네(O-NE)’가 셀러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휴일배송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일요일 미배송으로 어려움을 겪던 식품 셀러까지 ‘매일오네’를 통해 매출 안정화 효과를 거두며 셀러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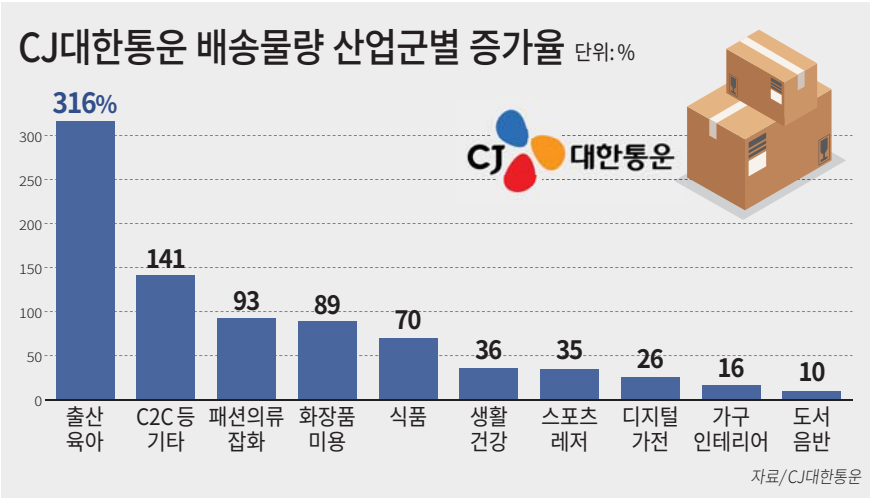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도 지난해 주 7일 배송에 뛰어든데 이어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이달부터 7일 배송을 본격 시작했다.

1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매일오네’ 도입 첫 해인 지난 202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2월 일요일 배송 물량이 연초와 비교해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종류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주말에도 상품 구매 요구가 큰 생활소비재를 중심으로 물량이 크게 늘었다.

먼저 출산·육아상품 배송물량이 316% 폭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저귀와 분유, 유아용품 등 갑작스러운 구매 빈도가 높은 카테고리 특성상 ‘매일오네’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패션의류·잡화 상품군은 여가시간이 많은 주말 소유효과에 힘입



어 93% 늘었고, 화장품·미용 카테고리 가 89%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매일오네’ 도입 당시 주요 수혜 카테고리인 기대됐던 식품류 역시 물량이 70% 증가하며 휴일배송 효과를 입증하는 데 한몫했다.

과거에는 신선식품의 변질 우려로 주말·공휴일 전에는 택배 접수가 제한돼 식품 셀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일오네’ 도입으로 판매일수 확대뿐 아니라 재고 관리에도 도움을 얻게 됐다. 특히 식품 중에서도 지역 특산물 배송량은 연초 대비 138%나 늘어나 지역 농수산물 셀러의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C2C) 택배가 포함된 기타 부문의 증가율이 140%를 기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 9월 당근마켓과 손잡고 중고거래 이용자를 위한 ‘바로배송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C2C 택배를 강화해 온 점이 주효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전체 주말배송 물량을 상품 종류별로 구분하면 ▲패션의류·잡화 가 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품류(21%) ▲생활·건강(17%) ▲화장품·미

용(11%) ▲도서·음반(8%) 순으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큰 소비재 상품들의 주말 배송 비중이 높았다.

CJ대한통운 윤재승 오네(O-NE) 본부장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 ‘매일오네’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 적용 지역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오네’ 애플리케이션 개편을 통해 C2C 택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해 전통시장 물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등 셀러·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빠르게 바뀌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익일배송 서비스를 1년전인 지난해 1월5일부터 휴일배송이 가능한 ‘매일오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별도의 물류 투자 없이도 364일 판매·배송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에 이어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이달 4일부터 전국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 공휴일 집·배송 업무를 시작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STX, 트롤리고 기반 친환경 배지 유통 진출

코코피트 그로우백 12만개 국내 공급  
농업자재·농수산물 등 라인업 확대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디지털 B2B 무역플랫폼 ‘트롤리고’를 기반으로 친환경 시설원예용 배지 유통 사업에 나선다.

STX는 스리랑카산 시설원예용 배지의 첫 물량이 국내에 도착해 약 12만 개 규모의 코코넛 섬유 기반 재배 배지 ‘코코피트 그로우백’을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시설원에 농가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STX가수입하는 친환경 코코피트배지는 코코넛 섬유를 활용한 친환경 재배소재다. 시설원에 농가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때 사용되며 자연 분해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영국 본사와 스리랑카 생산기지를 둔 보타니코아가 생산한

제품으로, STX는 통관·물류 등 유통 전반을 담당하며 친환경 배지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STX는 트롤리고를 중심으로 빙어, 냉동 대왕오징어, 냉동 블루베리 등 농수산물과 유기질 비료 같은 농업자재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들은 트롤리고 사이트내 인기 아이템 상위권에 오르며 플랫폼 내 거래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STX 관계자는 “트롤리고를 기반으로 농업자재 분야에서의 거래 경험을 축적하며,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동시에, 트롤리고를 중심으로 농수산물과 농업자재 라인업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 N32, TSS 전용 프레임 ‘마르피’ 선택

슈퍼싱글 2개 결합 가능한 구조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새해를 맞아 프레임 신제품 ‘마르피(Marfi)’ (사진)를 새로 선보였다.

19일 N32에 따르면 마르피는 N32가 처음 출시한 트윈슈퍼싱글(TSS) 사이즈 전용 프레임으로, 슈퍼싱글(SS) 매트리스 두 개를 하나의 프레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프레임을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한층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각자의 수면 습관과 취향, 그리고 체형 등에 따라 독립적인 수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더라도 독립수면을 선호하는 요즘 부부들에게 제격이다.

마르피의 헤드보드에는 일체형 쿠션이 적용돼 시각적인 편안함은 물론 기대었을 때 쿠션 주름의 폭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프레임 하단 측면부에도 스펀지와 솜을 더해 안전성까지 세심하



게 고려했다. 헤드보드 양 측면에는 USB-C 타입 듀얼 충전 포트가 각각 설치돼 스마트폰 등을 급속충전할 수 있다.

마르피는 국내 전동침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N32 모션베드’와 호환도가 높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한쪽에만 모션베드를 둘 수도 있어 활용성 또한 우수하다.

색상은 웜그레이톤의 라이트그레이로 침실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연출하며 어떤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김승호 기자

# LS전선,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A-’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넷제로·SBTi로 대응력 인정  
탄소가격제·공급망 관리 강화

LS전선은 19일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발표한 2025년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정보공개 및 평가 플랫폼으로, 기업의 기후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후 리스크·기회 대응, 공급망 참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부터 D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CDP 등급은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공급망 탄소 관리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요 발주처와 고객사들이 협력사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할 때 CDP 등급을 반영하는 만큼, 이번 리더십 등급 획득은 LS전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LS전선은 국내외 생



LS전선 동해 사업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LS전선

산법인과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탄소배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검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에 대해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획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LS전선은 향후 기후 대응 역량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내부 탄소가격제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해 탄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공급망 실사와 협력사 교육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경환 LS전선 ESG경영전략부문장은 “CDP 리더십 등급 진입은 LS전선의 기후 전략과 실행력이 글로벌 기준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전력 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혁신창업기업 보증·투자 연계 후속지원

기보, 벤처캠프 18기 참여기업 모집  
창업 3년 이내 기업·예비창업자 대상  
서류·발표평가 거쳐 70개 내외 선발

기술보증기금이 ‘제18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2월4일까지 모집한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발맞춰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보는 일반전형 외에도 ▲지역균형 ▲ESG ▲신성장 4.0 ▲예비창업 ▲글로벌 등 5개 분야의 특별전형을 운영해 다양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군

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스타트업 맞춤형 성장전략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경험 및 성공 노하우 전수 ▲엑셀러레이터·VC·엔젤 투자 연계 및 VC 네트워킹 등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글로벌 전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ESG 전형 선정기업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천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기보는 벤처캠프 수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기술이전, 기술·경영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후속지원도 연계해 혁신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